

# 은유와 구원

양 명 수

## 1. 해석학에서 은유의 자리

리쾨르의 은유 이론은 상징론의 일부다. 그러면서 해석학에 들어온다. 카시러와 달리 리쾨르는 상징을 겹뜻을 지닌 말로 본다. 해석이란 결국 겹뜻을 푸는 것이다. 일차 의미로부터 이차 의미를 찾는 것이요, 겹뜻 속에 숨어 있는 속뜻을 풀어내는 것이다. 그 같은 상징에는 문장에서 발생하는 은유말고도 이야기가 있다. 이야기는 문장이 모여 이루어진 것이요, 줄거리가 있는 꾸민 말인데,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은 은유를 푸는 것과 비슷한 해석 행위다. 꾸민 이야기는 거대한 은유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대개 은유라는 것은 전의 이론 *la théorie des tropes* 을 가리키고 이야기라면 문학 장르에 속한다. 그러나 그 모두 '의미 혁신' 을 일으키는 말이다. 그래서 은유나 이야기는 상징철학, 곧 해석학에 속한다. 리쾨르가 은유 이론을 편 책이 『살아 있는 은유 *La métaphore vive*』(1975)이고 이야기론을 편 책이 『시간과 이야기 *Temps et récit*』(1983)인데, 이것들은 다른 해석학 책들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은유란 해석학 또는 상징철학이라는 거대한 틀 안에서 보아야 한다는 얘기다.

리콤폴트의 해석학은 데카르트의 코기토를 수정하고 의미론을 거쳐 존재론으로 간다. 해석이 무엇인지를 생각함으로써 주체와 존재의 순환을 말한다. 주체와 존재의 순환은 앎과 믿음의 순환이요 인식론과 존재론의 종합이다. 존재론을 끌어들이므로써 주체철학에서 말하는 자신만만한 주체를 한풀 꺾는다. 그러나 그것은 주체의 제약이라기보다는 주체의 깊이를 찾는 일이다. 인식의 제약이라기보다는 인식의 개방을 시도한다. 그의 해석학이 종교의 문제를 안고 들어오지만 끝내 철학인 한, 반성을 멈추지 않는다. 끝까지 생각하고 인식한다. 주체를 중요하게 보는 것이다. 말하자면 근대의 유산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그 반성은 존재하려는 욕망을 내 것으로 삼는 것이다. 데카르트의 코기토와 달리, 나 밖의 세계를 떨어뜨려놓고 내가 이리저리 모양을 만드는(하이데거가 말하는 Weltbild) 것이 아니라 내가 세계에 이미 들어 있다. 주체에 대해서는 존재 문제가 있고, 오성에 대해서는 욕망의 문제가 있다. 주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여기서 상징 언어가 중요하다. 존재나 욕망은 상징으로밖에 표현되지 않기 때문이다. 존재는 거룩한 경험을 낳고, 욕망은 꿈을 낳는다. 종교 현상학(엘리아데)에서 말하는 거룩한 경험의 언어, 정신분석학(프로이트)에서 말하는 욕망의 언어는 모두 상징 언어다. 상징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을 말로 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말로 다 할 수 없다는 것은 주체를 밑과 위에서 제약함을 가리킨다. 거룩한 존재와 리비도가 주체를 제약한다. 근대에는 상징 언어보다 기술 언어가 발달했다. 기술 언어는 직접 서술이다. 할말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주체가 크다. 할말을 분명하게 말한다는 것은 자기의 뜻을 당당하게 밝히는 것이지만 동시에 할말을 다 한다는 얘기다. 할말을 다 못 해서 나온 상징 언어와 다르다. 리콤폴트의 해석학이 상징철학이라는 것은 근대와 달리 주체의 키를 낮춘다는 얘기다. 근대인은 거룩한 체험을 잃어버렸다. 리콤폴트가 볼 때 인간 해방은 거룩한 체험을 다시 찾는 데 있다. 그것은 저쪽에서 오는 소리를 듣는 일이다. 저

쪽에서 오는 존재의 소리는 상징 언어다. 또한, 인간의 구원은 억압된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데 있다. 의식화란 상징으로 된 욕망의 언어, 무의식의 언어를 풀어 해석하는 일이다.

리콤피르에게서 은유는 시 상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거룩한 존재<sup>1)</sup>의 현현을 말하는 우주 상징과 욕망의 기호론이 되는 꿈의 상징을 아우르는 차원이 될 수 있다. 말하자면 은유에서 욕망의 고고학과 거룩함의 목적론이 종합되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말이 발생하는 기원에서 있는 것이 시 상징이다. 말이 있어야 상징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주 상징과 꿈 상징도 모두 사람이 말로 하면서 상징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시 언어는 바로 그 말이 발생하는 지점에 있다. 그렇다면 시 상징은 두 개의 상징이 출현하는 그 지점을 포착하고 있는 셈이다. 다시 말해보자. 말이 있어야 상징이 있다. 우주 상징을 보자. 세상과 우주도 말하고 싶어한다 *expressivité du monde*. 그것을 사람이 말로 하면서 세상은 상징이 된다. “강줄기도 당신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세상이 말하고 싶은 것은 사람이 할말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할 말이 세상을 말 이전의 말로 만들고, 마침내 말을 통해 세상은 상징으로 언어 세계에 들어온다. 꿈도 마찬가지다. 충동은 사람이 할말을 통해 말 이전의 말, 곧 표상이 된다. 욕망은 언어로 나오게 되어 있다. 언어로 나올 수 없을 정도로 왜곡되거나 감추어져 있지 않다. 그 꿈을 말할 때 꿈은 상징이 되며 언어의 세계로 나온다. 한편, 시는 상징으로 말을 창조한다. 그것은 우주 상징이나 꿈 상징과는 달리 사람이 만드는 말이다. 그러나 그 말로 수수께끼 같은 우주 세계와 심리 세계에 간헐 있던 할말을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시 상징은 리비도 상징과 우주 상징을 아우르는 것일 수 있다. 시를 풀면서 사람은 욕망의 문제를 풀고 거룩한 체험에 이끌릴 수 있다는 말이다. 삶의 의미를 찾아 구원을 이루려는 힘이 시

---

1) 거룩한 존재 *le sacré*란 특정 종교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하이데거가 말하는 존재 *Sein*도 거룩하고, 종교현상학에서 말하는 신들도 거룩하다.

상징에 들어 있기 때문이다. 억압된 욕망은 죽음 같은 무의미를 낳고, 잃어버린 존재 채형 역시 무의미를 낳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시 언어가 삶의 의미를 찾는 힘을 지녔다면, 그래서 인간 해방의 힘을 지녔다면, 결국 밑에 있는 욕망의 문제와 위에 있는 거룩한 존재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시 상징을 푸는 것은 뒤에 있는 억압을 풀고, 앞에 있는 존재의 뜻에 이끌려 지금 여기서 삶의 뜻을 찾는 것이다.

리쾨르의 은유 이론은 그런 상징 이론 안에서 펼쳐진다.

## 2. 은유와 의미 혁신

은유는 문장에서 발생하고 이야기는 문장들이 모여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 상징됨이란 의미 혁신 *innovation sémantique* 을 가리킨다. 의미 혁신이란, 한 말로부터 하지 않은 말이 생겨남을 가리킨다. 그러한 의미 혁신은 은유의 경우 낱말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에서 발생한다. 술부에서 발생한다. 의미 혁신은 주부와 술부가 이어지면서 낱말이 사전에 나오는 의미를 어느 정도 떠나면서 발생한다. 사전 의미는 차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결국 은유는 차이의 체계로서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말이 그 일차 의미를 떠나면서 공간과 여유를 만들고, 그 공간 속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삶의 현실을 채운다. 현실을 잡아 끌어와서, 버성기던 낱말이 술부에서 뜻이 통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낱말 뜻 *sens* 에서는 안 통하지만 삶의 뜻과 연결된 지시성 *référence* 때문에 뜻이 통한다.

의미 혁신은, 문자 해석으로는 잘 안 맞고 버성기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데서 생긴다. 은유가 발생하는 과정은 서로 버성김을 넘어서는 데 있다. 먼저, 시니피에 사이의 조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버성긴다. 예를 들어 ‘하늘이 죽었다’ 고 할 때<sup>2)</sup> 죽었다는 낱말의 뜻은 하늘이라는 낱말의 뜻과 어울리지 않는다. 생물체에만 어울리는 말이다. 그래서 마찰이 생긴다.

어휘 부호에 있어서 서로 부딪친다. 그러나 그러한 마찰을 이겨내고 둘이 서로 만날 때 뜻이 넘쳐난다. 거리가 상상력으로 채워지는 것이다. 이때 상상력은 먼저 구상력(생산하는 상상력)<sup>3)</sup>이요, 그 다음에는 창조하는 상상력 *imagination créatrice*이다. 생산하는 상상력은 은유를 삶의 현실과 연결시키는 구실을 한다. 그리고 창조하는 상상력은 그 현실을 다시 그리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상상력을 통해 은유는 새로운 현실을 그리는 언어가 된다. 이 점은 뒤에서 보기로 하자. 은유가 술부에서 발생한다는 것은 바로 현실을 새롭게, 그리고 다시 그리는 상상력이 동원됨을 가리킨다. 수사학에서는 은유를 가리켜 어떤 낱말이 새로운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고 했지만, 은유에서 그런 낱말 차원은 문장 전체가 새로운 뜻을 지니는 데 이바지한다.

리코르르는 벤베니스트와 함께 이렇게 말한다. 랑그보다 말이 먼저다. 문장들로 이루어진 담론 안에서 랑그가 존재한다. 낱말이 아니라 말에서 언어가 시작된다는 것이다. 말은 낱말이 아니다. 언어는 할말에서 생기지 않는가? 할말은 삶의 현실과 관련된 것이요, 그래서 문장이다. 기호들의 체계인 랑그는 언어의 한 면일 뿐이다. 문장의 뜻이 낱말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낱말의 뜻이 문장에서 생긴다. 구조가 있지만, 기호의 차이로 인한 낱말 뜻이 있지만, 그 낱말 뜻은 문장 속에서 말하는 주체의 의도와 상황 따위와 함께 의미를 갖는다. 말의 뜻은 주체의 뜻 *intention*과 관련이 있다. 언어는 의도 *intention*를 품고 있다. 언어 밖의 무엇을 겨냥한다 *référence*.<sup>4)</sup> 말은 할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조라기보다는 사건이다.

2) *La métaphore vive*, p. 195.

3) 칸트의 구상력 *Einbildungskraft*을 생산하는 상상력 *imagination productrice*이라고 번역한다. 그런데 이때 생산한다는 것은 감각 경험의 세계를 범주와 연결시켜 인식 *intellectio*을 낳는다는 점에서 쓴 말이다. 그것은 기억을 되살리는 재생산하는 상상력 *imagination reproductive*과 다르다. 칸트 자신이 구상력을 생산하는 구상력과 재생산하는 구상력으로 나누는데 인식론에서 중요한 것은 앞의 것이다.

4) 같은 책, p. 98.

그래서 말뜻은 음성학 차원의 또는 사전 어휘 차원의 낱말 뜻이 아니다. 기호의 차이들의 체계가 아니다.

은유는 더욱 그렇다. 은유는 낱말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부와 술부가 이어지면서 발생한다. 이 점에서, 낱말이 낱말을 대체하는 환유와 다르다. 환유는 기호 차원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은유는 말 *discours* 차원에서 일어나는 것이다.<sup>5)</sup> 말에서도 기술(테크닉) 언어는 직접 서술이요 말로 무엇을 곧바로 겨냥한다. 그러나 은유는 말을 ‘통해’ 하려고 하는 말이 있다. 한 번 꼬여서 간접으로 무엇을 겨냥한다. 여기서 의미의 혁신이 일어나며 뜻이 넘쳐 퍼진다. 언어에 들어 있는 뜻이 아니라 언어가 새로 만들어내는 뜻이다. 말이 새로운 뜻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은유는 뜻하는 사건 *événement sémantique*이다.<sup>6)</sup>

그것이 ‘살아 있는’ 은유다. 살아 있는 은유는 여러 겹의 뜻 *polyémie*을 펼쳐놓는다. 주부와 술부가 합쳐지면서 언어가 새롭게 펼친 의미 세계는 주체의 뜻으로부터도 자유롭다. 말하자면 후설의 지향성으로부터도 자유롭다. 내가 아니라 언어가 창조한다. 이 점에서 은유와 상징은 살아 있는 은유 또는 살아 있는 상징이다. 은유나 상징은 내가 지배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다. 내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을 은유나 상징으로 표현하는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세계는 내가 지배할 수 없는 세계다. 은유로 말한 사람은 그 은유로 뭔가 뜻하지만, 은유가 펼치는 뜻의 세계는 이미 말한 사람의 뜻 또는 의도로부터 자유롭다. 뜻이 넘치기 때문이다. 일차 의미 또는 문자 의미가 넘쳐서 뜻이 생긴다. “그처럼 넘치는 뜻이 해석을 불러일으킨다.”<sup>7)</sup> 그러므로 은유 해석은 언어에 이끌려가는 것이다. 주체가 해석하지만 주체는 이미 넘치는 뜻의 세계에 끌려 해석한다. 그것은 말한 사람의 뜻(의도)을 찾는 것도 아니고 해석자의 뜻이 주도하는 것도 아니다. 이렇

5) 같은 책, pp. 252, 255.

6) 같은 책, p. 126.

7) *De l'interprétation*, p. 27.

게 해서 살아 있는 은유는 주체철학을 넘어선다. 리쾨르의 상징론이 그렇다. 사실 리쾨르의 은유 이론은 상징론으로 가고 해석학으로 간다. 해석학은 철학이므로 합리적인 생각이요, 반성이다. 그러나 그것은 상징으로부터 생각하고 상징의 풍부함을 따라 생각하는 것이다.<sup>8)</sup>

이야기도 은유와 비슷하다. 줄거리를 통해 원인과 결과가 생기고 그 안에서 서로 우연한 사건들이 하나의 큰 행위 속에서 통일되고 종합된다. 이처럼 서로 다른 것들을 종합한다는 점에서 이야기는 은유와 비슷하다. 은유나 이야기나 모두 말하지 않은 것이 언어 속에 출현한다. 말하지 않은 것이 출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말하지 않은 것은 말하지 못한 '것'이다. 여기서 '것'은 삶의 현실이다. 삶의 현실을 말하려는 할말이 들어 있다. 한 말 속에 하지 못한 말이 들어 있다. 할말을 다 못 한다. 그러나 그 못다 한 말을 담고 있는 말이 은유다. 그래서 은유에는 뜻이 넘친다. 할말을 다 못 했다는 점에서 할말과 한 말의 거리가 있다. 그러나 못다 한 말을 품고 있다는 점에서 은유에는 그 거리를 극복할 풍요가 있다. 거리와 거리의 극복, 바로 여기에 은유의 사건이 들어 있다. 물론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하지 않은 말의 범위다. 하지 않은 말은 한 말과 탄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여기에 구조주의가 역할을 한다. 낱말이 갖고 있는 뜻과 전혀 탄말이 될 수는 없다. 그것은 말을 잘못 알아들은 것이거나 이해를 잘못된 것이다. 은유나 상징 언어는 그런 것이 아니다. 하지 않은 말, 곧 못다 한 말을 찾아 말의 범위를 넓히지만, 그것이 전혀 탄말이 되어서는 안 된다.

독자나 청자는 한 말을 통해 할말을 찾는다. 할말을 한다. 말하는 사람은 한 말을 통해 할말을 한 것이고, 독자 역시 저자가 한 말을 통해 할말을 한다. 여기서 독자가 저자의 말을 통해 자기가 할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저자의 말이 할말을 다 못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할말과 한 말은 거리가 있다. 이 거리가 언어의 한계이면서 동시에 창조하는 상상력이 들어갈 수

---

8) *Le conflit des interprétations*, p. 292.

있는 부분이다. 창조하는 상상력이란 저자의 의도를 알아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세상을 새롭게 그리는 것이다.

### 3. 그림과 논리

리콤피르는 은유의 의미 혁신이 범주의 모태 또는 의미의 모태인 도식 *schématisation*과 관련되어 일어나는 것으로 본다. 은유는 도식과 같다. 칸트의 인식론에서 도식화란 바깥의 현상을 범주(카테고리) 또는 순수 오성 개념과 연결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바깥의 현상을 감각하는 감성은 대단히 흩어져 있는 것이므로 구상력을 통해 종합하지 않으면 그것이 인식되지 않는다. 도식은 구상력을 발동시켜 종합하면서 그것을 다시 범주와 연결시켜 앎(知)을 낳는다.<sup>9)</sup> 구상력 또는 생산하는 상상력이란 바로 도식화에서 일어나는 종합 작용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종래의 개념과 범주에는 맞지 않는 것이 술부에서 새로운 논리로 탄생한다. 은유가 명사의 문제라면 단순한 개념의 전이겠지만, 술부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면 새로운 논리의 문제가 된다. 말이 안 되는 데 말이 된다. 말(로고스)은 결국 논리요, 말이 된다는 것은 논리가 선다는 것이다. 여기서 논리란 현실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말법이다. 말하자면 논리가 말 안에서 말끼리의 관계가 아니라 말 밖의 현실을 가리킨다는 얘기다.<sup>10)</sup> 도식이란 것은 바깥 세계와 오

---

9) 흔히 도식화라면 다양한 것을 어떤 틀이나 범주에 넣는 것을 가리킨다. 인식론에서도 비슷하다. 범주란 인식의 틀이다. 도식화란 흩어져 있는 감각을 그러한 범주와 연결시키는 것이요, 곧 범주에 집어넣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흩어진 감각을 그런 틀 속에서 종합하여 통일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인식이 탄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식론에서 말하는 도식은 일상에서 말하는 도식과 그 뜻이 비슷하다. 다만, 도식화는 우리가 일부러 행하는 것이 아니고 선천적으로 주어져 있어 모든 인식에 늘 따라다니는 것이다. 그런 도식의 작업이 없이는 인식이 없다는 것이다.

10) 로고스는 존재론과 연결되는 것이다.



성의 개념을 이어주는 것이다. 감각과 현실 세계와 선험의 세계를 이어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리코르가 은유를 도식에 연결시킨 것은 은유가 삶의 현실과 연결되는 것을 가리킨다. 구상력, 곧 생산하는 상상력을 통해 시 언어는 현실과 연결된다. 뭔가 현실에 대한 말이 된다. 일단 낱말이 가리키는 현실에서 떠난다. 그것은 선험 영역에서 범주와 논리의 이동을 가져온다. 서로 맞지 않는 범주가 새롭게 맞는 범주가 되면서 발생하는 새로운 논리는 단순히 선험 세계에 머무르지 않고 다시 감각의 바깥 세계로 연결된다. 현실 세계, 곧 경험 세계를 끌고 들어와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이다.

새로운 논리가 탄생한다는 것은, 은유가 생각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을 암시한다. 상징은 생각을 불러일으킨다. 어디까지나 생각이요 반성이요 논리다. 시 언어는 따져가면서 진리를 찾는 논리 언어 또는 사변 언어를 배경하는 것이 아니라 풍요롭게 한다. 현실을 사는 주체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풍요롭게 한다. 거리가 생기고 거리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활동하는 것은 생각이다. 영상이나 이미지가 아니라 생각이다. 이 점을 살펴보자. 은유는 그림 언어다. 말하자면 감각 언어다. 이미지가 발생한다. 그런데 그 이미지가 일으키는 운동은 이미지(像)가 아니라 생각(想)이다. 그렇기 때문에 은유가 새로운 논리,<sup>11)</sup> 새로운 세상 이해를 낳을 수 있다. 뜻이 퍼지고 풍부해지고 뜻이 넘치는 것은, 은유가 이미지를 거친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그런데 그 이미지는 뜻을 품은 이미지다.<sup>12)</sup> 그래서 그 이미지는 말 같다. 말하자면 그림 말 *image verbal*<sup>13)</sup>이다. 그러므로 은유는 그 이미지가 그리는 것을 '생각' 하는 것이다. 은유에서 발생하는 상상력은 그림을 생각하는(想像) 것이 아니라 그림이 일으키는 생각(像想)이다. 은유도 무언가를 뜻하는 것인데, 뜻한다는 것은 표상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sup>14)</sup>

11) 은유에서 논리와 감각이 이어지고, 말과 말 아닌 것이 이어진다. *La métaphore vive*, p. 264.

12) 뜻이 이미지를 조정한다(같은 책, p. 268).

13) 같은 책, p. 253.

14) 같은 책, p. 381.

표상하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표상은 비슷한 것들이 모이는 것이고, 뜻하는 것은 결국 뭔가를 결정한 것이다.<sup>15)</sup> 그림 언어는 그림을 띄우고 그 그림이 표상되지만 거기까지는 아직 해석이 아니다. 뜻이 결정되지 않았다.<sup>16)</sup> 그런데 뜻은 결국 상상 *imaginatio*이 앎의 세계 *intellectio*로 들어오는 것이요, 그림 언어가 개념 언어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은유는 사변 언어와 연결되고 논리를 낳는다. 사변 언어란 현실을 인식하고 현실을 주도하며 살아가는 언어다. 다만 은유의 그림 언어는 사변 이성, 곧 오성이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는 곳에서 발생하여 새로운 생각을 낳게 하는 것이다. 오성의 한계에서 은유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경우다. 말로 다 할 수 없다는 것은 개념 언어 또는 사변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말이 은유 언어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그림 언어는 새로운 생각, 새로운 사변을 낳는다. 생각으로 하여금 더 생각해보게 *penser plus*<sup>17)</sup> 한다. 그것이 살아 있는 은유의 창조력이다.

#### 4. 새 세상을 넘봄: 은유와 진리

일종의 구상력, 곧 생산하는 상상력이 은유에서 생기는 거리를 현실과 연결시킨다면 창조하는 상상력은 그 현실을 지금과 다른 새로운 현실로 만든다. 그리하여 은유는 새로운 현실을 넘보는 언어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미 존재론이 섞여 들어온다.

은유를 해석하는 것은 은유를 푸는 것이다. 뜻이 감추어져 있다. 그때

---

15) "Si l'imaginatio est le règne du 'semblable,' l'intellectio est celui du 'même'," *ibid.*, p. 381.

16) 뜻은 해석을 통해 결정된다.

17) 같은 책, p. 384.

감추어진 뜻을 찾는 작업에는 일종의 ‘에포케 *epoché*’가 발생한다. 일상 현실을 괄호 속에 넣는다. 또는 뒤로 밀쳐놓는다. 그러면서 텍스트 앞에 자신을 개방한다.<sup>18)</sup> 밀쳐놓으면서 동시에 자신을 개방한다. 그림 말인 은유는 일상 현실을 괄호 속에 넣으면서 중립 지대를 산출한다. 그러면서 의미가 무한히 열린다. 앞에서 말했듯이 그 그림은 뜻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것처럼 무한한 의미는 아무런 의미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런 위기의 순간에 끼여드는 것이 주체다. 해석자는 자신의 경험 세계를 끌어들여 이차 의미를 잡는다. 그래서 은유가 낳는 상상의 세계는 거의 경험이다. 거의 현실을 겪는 것이다. 앞에서 저자의 말을 통해 자기가 할말을 한다는 것도 그것이다. 독자는 자신의 경험 세계를 끌어들이는 것이다.

이 같은 과정은 일상 현실을 괄호에 집어넣으면서 생기는 일이다. 일상 현실이란 자연스런 현실<sup>19)</sup>을 가리킨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현실, 그저 그렇게 굴러가는 현실을 가리킨다. 거기에는 이데올로기가 지배한다. 일상 현실을 괄호 안에 넣는 것은 그런 이데올로기를 넘어 새로운 세상을 넘보는 것이다. 은유는 새로운 세상을 넘보는 언어의 능력이다. 은유 해석이란 거의 경험에 가깝다고 했는데 결국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는 것이다. 현실을 바꾸는 것이다. 리코르가 자주 말하는 은유의 힘, 곧 ‘현실을 다시 그린다 *redécrire la réalité*’는 뜻이 그것이다. 그림 언어는 현실을 다시 그려보는 언어다. 일상 언어가 담고 있는 일상 현실을 넘어 새로운 현실을 넘본다. 다시 그리는 것은 새로운 논리를 말한다. 이것은 진리 물음과 연결되고 존재론과 연결된다. 이른바 존재신학 *onto-théologie*과 연결된다.

세상을 ‘무엇처럼 보는 것’은 ‘무엇처럼 존재하는 것’이다. 은유에 존재론이 들어오는 것은, 먼저 언어가 언어 바깥의 삶의 현실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 다음에는, 은유의 해석 곧 창조하는 상상력이 이미 있는

18) 이런 표현도 텍스트 해석이 주체 맘대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암시한다.

19) 리코르는 *la réalité naturelle*라는 표현을 쓴다.

존재의 뜻에 이끌린다는 점에서 그렇다. 진리에 이끌린다는 점에서 그렇다. 생산하는 상상력 때문에 그림 언어인 은유가 삶의 현실과 연결된 후에, 그것이 어떻게 그 현실의 변화로 이어지는가? 그것은 진리에 이끌리기 때문이다. 진리에 비추어 현실을 경험하면 이데올로기 비판과 함께 현실을 넘어 새로운 세상을 넘보게 된다. 시 언어 또는 은유에는 그런 상상력이 들어 있다. 앞에서 말했듯이 은유는 주부와 술부의 버성김을 극복하며 발생한다. 그것이 극복될 때 거기에는 무슨 믿음이 들어간다. 언어가 자기를 파괴하고 언어 바깥의 세계로 가는 언어의 엑스터시가 발생할 때, 거기에는 존재론 차원의 헌신 *ontological commitment*<sup>20)</sup>이 일어난다. 여기서 헌신은 쓸림이고 이끌림이다. 내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끌린다. 내가 하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는 것은 이미 있는 세계의 뜻 또는 존재의 뜻에 충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존재론 차원의 헌신이다. 나는 이미 '세계 내 존재'다. 따지고 분석하는 이성이 아니라 이미 어디에 속하고 있는 믿음의 지성 *intellectus fidei*이다. 개인의 경험으로부터 보편 의미 세계로 나아간다. "시 언어는 우리로 하여금 개방된 교통 *communion ouverte*을 통해 세계 전체에 참여하게 한다."<sup>21)</sup> 그래서 개방된 지성이요 희망의 지성 *intellectus spei*이다.

이것은 삶의 의미 문제다. 존재론에서 볼 때 삶의 의미는 주어져 있다. 존재의 뜻이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sup>22)</sup> 나는 거기에 속해 있다. 것처럼 주어져 있는 뜻, 곧 진리에 비출 때, 현실은 개혁 대상이 된다. 현실의 억압, 현실의 무의미가 극복되어야 한다. 은유의 넘치는 뜻은 삶의 의미(뜻)를 찾으려는 것이고,<sup>23)</sup> 뜻 없음을 극복하려는 노력이다. 이미 있는 삶의 뜻을 좇아 현실을 다시 그린다.<sup>24)</sup> 여기서 은유는 은총과 관련된다. 은유는 은총과

20) 같은 책, p. 313.

21) 같은 책, p. 314.

22) 이것은 구속이라기보다는 통일을 가리킨다.

23) 그래서 은유의 창조력은 창조이지만 발견 *heuristique*이다.

함께 제 역할을 한다. 상징은 내가 지배할 수 없는 것이요, 말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런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것은 곧 주어진 뜻이 나를 이끄는 것이다. 뜻이 넘치고 퍼져서 일차 의미가 이차 의미를 지향할 때, 그 지향에는 삶의 의미를 지향하는 것이 들어 있다. 이것은 물론 후설이 말하는 지향성과는 다르다. 후설이 지향성을 통해 의미 세계를 마련했지만 결국 후설에게서 의미는 내가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거기서 의미의 생산자는 주체다. 그러나 은유나 상징에서 찾는 의미는 내게 주어진 것이다. 말이 창조하는 의미란 주어진 뜻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이다. 물론 은유나 상징에서 내가 드러나게 삶의 뜻을 찾는 것은 아니다. '하늘은 죽었다'고 할 때, 그 의미를 찾는 작업이 곧 삶의 뜻을 찾는 작업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말의 뜻을 찾는 나를 삶의 뜻이 이끈다. 은유 해석에는 삶의 의미에 대한 관심이 들어 있다는 얘기다. 말하자면 존재의 뜻의 계시 속에서 나는 말의 뜻을 찾는다. 존재의 뜻은 은총이다. 사람에게 는 삶의 의미가 곧 생명이기 때문이다. 주어진 뜻을 따라 나는 이차 의미를 찾는다. 내가 일차 의미를 통해 이차 의미를 찾는 데는 주어진 삶의 뜻이 이끄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 문학이라는 것이 그렇다. 결국 은유를 해석하며 나는 이미 있는 뜻 안에서 내 뜻을 발휘하는 것이다. 그것이 내 나름대로 찾은 뜻이다. 해석은 내 나름대로 뜻을 찾는 것이다. 귀속 *appartenance*과 거리두기 *distantiation*의 변증법이다.<sup>25)</sup>

해석이란 텍스트 앞에 자신을 개방하는 것이다. 이것은 주체철학과 같은 맥락에서 나온 역사 비평과 다르다. 역사 비평은 세상을 주체의 뜻대로 모양내고 *Weltbild* 주도한 근대 정신의 산물이다. 그러나 리코르에게서 해석은 주체 맘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구조의 제약을 받는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그러나 상징에 이끌린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물론 내 뜻이 중

24) "Le pouvoir de redescription qui s'attache à certaines fictions heuristiques," *ibid.*, p. 386.

25) 같은 책, p. 399.

요하지만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주체가 중요하지만 그 주체는 큰 주체 안에 있다. 주어진 존재의 뜻, 우주의 뜻이 있다. 내게 주어진 뜻이 있다. 내 뜻은 내게 주어진 삶의 뜻과 연관되어 있다.

## 5. 결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대로 말이 이미 해석이다. 경험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실 경험을 말로 표현한다는 것은 그 현실에 대한 나름대로의 풀이이다. 해석이라는 얘기다. 그래서 말은 한계다. 그런데 은유는 말이면서 다시 해석되어야 한다. 해석되어야 할 말이다. 그것은 경험이 언어로 막 발생하는 지점에 은유가 있다는 얘기다. 은유는 말이지만 말이 안 되는 말이기 때문에 아직 경험이 말로 옮겨지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풀이가 아직 가해지지 않은 생생한 삶의 경험이 들어 있다. 시 언어는 말이 발생하는 바로 그 지점에 있다는 얘기가 그것이다. 이미 풀어버리지 않은 말이므로 살아 있는 은유는 거룩한 존재와 분리되지 않은 경험도 담고 있다.<sup>26)</sup> 거기서 존재의 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 그리고 존재의 소리를 들으며 무의미를 극복하는 힘을 담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은유는 구원의 언어다.

대체로 리쾨르는 언어의 본래 역할을 무의미의 극복과 연결시키는 것 같다. 물론 의사 소통이 언어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의사 소통 역시 뜻 없음을 이겨 삶의 뜻을 찾는 작업과 무관하지 않다. 신학에서는 의사 소통이 구원이다. 그런 신학이 리쾨르에게도 들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리쾨르의 언어철학을 종합해볼 때 언어는 할말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것은 언어의 본세를 구조주의와는 다르게 보고, 기호는 메

---

26) 근대에 발달한 과학 언어는 하버마스의 말대로 기술 관심으로 현실을 푼 언어다.

시지에 봉사한다고 보는 것이다. 리콥르는 언어의 메시지를 중요하게 본다. 할말이 중요한 것이다. 말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은 할말이다. 그러므로 할말은 말 이전의 말이라고 할 수 있다. 프로이트가 말하는 무의식의 표상 *Vorstellung*도 말 이전의 말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은 말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고 리콥르는 욕망의 의미론을 전개한다. 그 표상 역시 할말에서 비롯된다. 앞에서 언어는 삶의 경험의 표현이라고 했는데, 경험 자체가 할말과 함께 이루어진다. 이것이 인간 경험의 언어성이다. 리콥르가 시간 체험과 이야기를 같이 묶어 생각하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인간의 경험은 시간 체험이고, 시간 체험은 할 이야기와 함께 이루어진다.

은유는 못다 한 말, 곧 할말을 품고 있는 말이라고 했다. 어떤 점에서 은유는 이미 한 말이 아니라 할말 그 자체다. 거기에 은유의 풍요로움이 있는 것이요, 무의미의 극복의 의지가 들어 있는 것이다. 할말에서 언어가 비롯된다는 것이 왜 무의미의 극복과 연결되는가? 왜 은유가 진리 물음<sup>27)</sup>과 연결되어 구원 언어가 되는가? 우리의 경험은 시간 체험이라고 했다. 그런데 시간 체험이란 무엇인가? 리콥르는 어거스틴을 따라가는데, 어거스틴에게서 시간 체험은 먼저 분열의 체험이다.<sup>28)</sup> 영혼의 분열 *distentio animi* 때문에 현재와 과거와 미래가 있다. 분열은 무의미 또는 죽음이다. 살아도 죽은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분열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있다. 분열을 통합하려는 영혼의 의지 *intentio animi*가 시간 체험을 구성한다. 그래서 시간 체험은 현재 중심으로 미래 · 과거 · 현재의 분열을 통합한다.<sup>29)</sup> 분

27) 여기서 진리는 '나는 사람이다' 같은 판단 진리가 아니라 존재론의 진리, 곧 있는 것 *id quod est*이다. 있는 진리다. 그래서 구원하는 힘이 있다.

28) 이것은 인간의 현실을 죄의 현실로 보는 기독교 신학에서 나온 것이다. 나와 하나님, 나와 남, 나와 나의 분열이 죄다. 리콥르의 철학에는 그런 기독교 신학, 특별히 개신교 신학이 강하게 들어 있다. 그가 상징에 대한 탐구를 '악의 상징'에서 시작하고 거기에 바탕을 두고 있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최초의 상징 언어는 이런 악의 문제와 관련된 고백 언어라고 보고 있다.

29) 미래는 현재의 미래, 과거는 현재의 과거, 현재는 현재의 현재다.

열을 통합하려는 의지로서 시간 체험이 생긴다. 물론 그 분열이 완전히 극복되는 것은 아니며 나름대로 극복하는 것이다. 우리의 경험이 그렇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은 할말을 놓고 할말과 함께 경험이 생긴다. 어거스틴 자신이 시간 체험을 말하면서 '일을 말하는 것' 곧 언어 *verba*를 말한다.<sup>30)</sup> 분열 속에서 통합을 찾는 시간 체험은 무의미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할말과 같이 발생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언어는 할말에서 생기고, 할말은 무의미를 극복하려는 의지다. 그러므로 언어의 역할은 무의미의 극복에 있다. 구원에 있다. 그 할말을 현실에서 하게 할 때 현실에서 무의미가 극복되는 것이다. 물론 어느 정도지만 말이다. 할말은 언어 이전의 언어요, 그것이 언어로 나올 때 할말을 다 하지 못한다. 그런데 그처럼 다하지 못한 할말을 품고 있는 말이 은유다. 은유는 그 엉성함 때문에 풍요로운 언어요 구원의 언어인 것이다. 문학이 그렇다. 해석학은 일종의 언어철학인데, 리쾨르가 특별히 은유나 상징에 관심을 갖는 까닭은 거기에 있다.

---

30) 이 점을, 양명수 외, 『오늘의 어거스틴』, 대한기독교서회, 1997, p. 49에서 밝혀보았다.